

금요 양성 2026년 10월 9일

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

2026년 초에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에 대한 연재를 시작했다. 800주년 기념해가 끝나가고 있는 이 즈음에, 세라핌 사부가 초기의 작은 형제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에 대해 계속 묵상해 보겠다.

권고에 집중 (권고 11 과 12)

<https://www.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he-admonitions/149-fa-ed-1-page-133>

[권고 11: 다른 사람의 악행 때문에 무너지지 말 것이다]

¹하느님의 종은 죄 외에는 아무것도 못마땅해서는 안 됩니다. ²그리고 누가 어떻게 죄를 짓든, 하느님의 종이 이 때문에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흥분하거나 분개한다면, 스스로 과오를 쌓는 것입니다. 로마 2:5 ²어떤 일로 말미암아 분개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하느님의 종이 진정 소유없이 사는 사람입니다. ⁴그리고 *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면서* 마태 22:21 자기에게 아무 것도 남겨두지 않는 사람은 복됩니다. Mt 22:21

[권고 12: 주님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]

¹하느님의 종이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지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²육은 모든 선을 그스리기에,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선을 행하실 때, 그의 육이 그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않고, ³오히려 자신을 비천한 자로 여기며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작은 자로 평가할 때 알 수 있습니다.

토론과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

+ 오소서, 성령이여! 제가 권고 11을 묵상할 때 저의 정신과 마음을 열어 주소서.

- 언제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몰두하고 그 때문에 그들을 판단했던가?
-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되는 일에서 내게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인가?
- 프란치스코는 이 권고를 끝내면서 왜 마태 복음에 나오는 “*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*”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?

+ 권고 12 - 섬기는 지도자이거나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특히 이 권고에 주의를 잘 기울이시오.

- 왜 프란치스코 성인은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어떤 것을 성취하시려 할 때 자신을 낮추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?
- 성인이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가?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? 아니면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?
- 성인이 위대한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생각하는가? 권고 12의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?